

나주 공기업들 '극한 폭우' 복구·예방 총력

농어촌공사, 배수장 비상 펌프 설치·비상 체계 유지 등 호우 대비
한전, 비상발령 선포 상황실 256명 근무 24시간 대비태세 돌입
aT 화훼 농가 경매수수료 인하·농어촌공사 피해농가 복구 지원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수해 피해 복구와 호우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관들은 시설 점검과 비상 대비태세 유지는 물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25일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3일 이병호 사장 주재로 전국 부서장이 참여하는 호우 대비 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저수지와 댐 등 수리시설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는 각종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집중호우로 양·배수장이 파손되거나 침수되고, 저수지 제방 사면이 유실 등 농업기반시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병호 사장은 시설별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후 인력과 예산을 총 동원해 신속한 응급 복구를 당부했다.

농어촌공사는 본사와 지방부서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비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저수지 사전 방류와 예찰 활동 강화, 배수장 상시 정상 가동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정비 등으로 앞으로의 호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배수장 비상 펌프 설치, 손상된 저수지 제방 복구, 이동식 사이펀 설치 등으로 추가 피해 예방에도 힘을 쓰고 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본부 전체에 비상발령을 내렸다. 지역본부 직원 131명과 배전 전문인력을 포함한 256명이 상황실에 근무하면서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호우로 인한 전력 계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전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관들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 지원에도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수해피해 농가 복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aT는 우선 지원책으로 화훼 농가 경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폭우로 채소 값 등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사 자체기금을 이용해 수해복구 상금을 마련하고 피해농가 수해복구 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피해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앞선 지난 21일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충북 괴산군의 비닐하우스 복구 활동을 펼쳤다. 농어촌공사는 본사를 중심으로 각 광구 전남은 물론, 피해가 극심한 충남·북, 경북, 전북 등 농어촌지역의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복구인력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합동으로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가 극한 호우 등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수해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배수장 배·선반 시설을 긴급 복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전, 고위직 반부패·청렴교육...“리더 솔선수범” 강조

청탁금지법·행동강령 등 교육

한국전력은 지난 24일 '갑질관행 근절, 청렴한 전'을 목표로 본사 비전홀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에는 이정복 사장 직무대행과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경영진과 본사 중간관리자 이상이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사업소 처장급 직원들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함께했다.

이정복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을 직접 교육하면서 "갑질은 기업이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주도적 실천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에 리더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김주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국전력은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반부패 제도 개선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KDN, 사육 신축공사 안전강화 결의

합동 안전점검 시행도

한전KDN은 최근 서울인천지역본부 사육 신축공사 현장 안전대책 강화 결의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성공적인 사육 신축공사와 무사고·무재해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KDN은 건설 현장 관리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사전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에 중점을 뒀다.

점검은 김장현 한전KDN 사장과 건설사업관리단(CM)과 도급사, 한국건설안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계획 공평별 주요 안전대책에 대한 발표, 안전관계자 역할 및 중점 관

리 사항 논의와 관계자 간담회, 안전관계시스템 시연, 합동 안전지도 및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 참가자들은 경과보고와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극한 호우와 무더위로 인해 예측되는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올해를 한전KDN의 '관리·참여를 통한 현장 안전문화 정착 원년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시공 현장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작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학연금,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8월14일까지 제안서 접수
운용사 4곳 1000억 규모 약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2023년도 국내 PEF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운용사 선정은 총 4000억 원 규모로 평가 결과 상위 4곳을 최종 선정해 각 운용사별로 1000억 원 이내의 금액을 약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 14일 오후 4시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

아 1차 정량평가와 위탁운용사 현장실사, 2차 정성평가(PT)를 통해 운용사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말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투자사모집합투자기구(PEF)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이며, 결성 규모는 5000억 원 이상으로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 확보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반한 지속적인 대체투자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노력으로 안정적 자금운용 수익률 달성이 필요하다"며 "금반 역량 있는 위탁운용사 선정을 통해 자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ESG 연계 투자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www.tp.or.kr) 공지사항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